

브라질 관구 수도서원 경축년 축하식



2025년 1월 11일, 29명의 브라질 관구 소속 수녀들이 수도 서원 25년, 50년, 60년, 65년, 70년이라는 놀라운 경축년을 축하하는 동안 카노아스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중요한 날을 준비하면서 경축자들과 다른 수녀들은 시티오 노트담에서 진행된 영성 피정에 참여했습니다. 말씀의선교수도회의 죠아킴 데 안드라데 신부, SVD가 지도한 관구간 피정은 1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죠아킴 신부는 경축자들의 삶의 순례에 관한 그의 묵상을 중심으로 신앙과 봉사의 여정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의 미사가 카노아스 관구 본원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죠아킴 신부가 다른 두 사제와 함께 공동 집전한 미사에는 브라질의 양 관구에서 적잖은 수녀들이 와서 이 중대한 사건을 기리며 경축했습니다.

거룩한 십자가 관구 관구장인 마리아 딜세 슬라비에로 수녀와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 관구장 셸리 마리아 다 실바 수녀는 경축자들에게 진심어린 헌사를 전했습니다. 이는 수녀회의 사도적 사명에 대한 수년간의 봉사와 헌신, 노트담 카리스마에 대한 감동적인 증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관구 리더십은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를 지닌 교회 희년과 “감사와 희망의 순례자들”을 주제로 하는 수녀회 175주년에 이 경축년을 축하하는 중대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사 후에는 경축자들이 식당으로 맞아들여져 따뜻한 인사를 받고 마음이 담긴 헌사로 영예를 누렸습니다. 잔치분위기의 점심 식사는 이 기쁜 행사에 적절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소에 대한 굵직한 충실성과 노트담 수녀회안에서의 헌신적 봉사에 대해 경축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